

경기도,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지난해 남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경기 북부 일원에서 열립니다.

'Let's DMZ' 조직위원장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행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et's DMZ'는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4개 행사를 포함한 행사 명칭입니다.

먼저, 'DMZ 포럼'은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로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덱스에서 열립니다.

'DMZ, 남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해 판티킴푹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넬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에 나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조셉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 특별 세션과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6개 주제에 관한 12개 기획 세션이 진행됩니다.

'Live DMZ'는 다음 달 21 토요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음악 공연행사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야스트로, 모모랜드 등 아이돌 그룹과 김중서, 이은미 등 유명 가수의 축하공연과 함께 평화와 DMZ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DMZ 페스타'는 DMZ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덱스에서 진행되는 전시행사로 역사, 음식, 생태, 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도 함께 열립니다.

황교익 맛칼럼리스트와 심영순 요리연구가가 함께 진행하는 '이북음식 푸드토크쇼'는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남북정상회담 안찬의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ART DMZ'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마련된 예술행사로 이달 말 연천군 장남통일바라기 축제장과 9월 초 김포시 아트빌리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유명작가들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역예술가들의 거리공연과 평화작품을 완성해가는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22일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피스 메이커 콘서트'에서는 그리스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헌정곡을 한국 최초로 공연하며, 그리스 출신 가수 마리아 파란투리의 내한공연과 노찾사, 정태훈 등의 합동 공연도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영규 기자 (thelord@kbs.co.kr)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 기념 'Let's DMZ' 다음 달 개막

DMZ 관련 포럼, 예술 공연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이재명 지사, 판티킴폭 등 'DMZ 포럼'서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DMZ의 평화적 가치 알릴 기회'



[앵커]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북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은 'Let's DMZ' 행사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경기북부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DMZ 관련 다양한 토론회와 예술 공연 등으로 진행될 이번 축제는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가 'Let's DMZ' 행사를 개최합니다.

'Let's DMZ'는 DMZ 관련 다양한 토론회와 공연 등이 펼쳐지는 축제로, 다음 달 한 달 동안 고양과 연천, 김포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맡았고,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곡윤석 홍보기획관 등 경기도청 실무자와 도 산하기관장들이 조직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입니다.

(녹취) "경기도는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Let's DMZ'는 DMZ 포럼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4개 행사로 꾸려집니다.

먼저 DMZ 포럼은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펼치는 학술행사로 진행됩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판티킴폭 베트남 민권운동가 등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Live DMZ에서는 유명 뮤지션들이 증축동해 축하공연을 펼치고, DMZ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인 DMZ 페스타는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ART DMZ는 평화를 염원하는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녹취)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모으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2일,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PEACE MAKER CONCERT'에서는 그리스 대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헌정곡을 한국 최초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경기도,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Let's DMZ' 개최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앵커)

지난해 남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고양, 파주 등 경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Let's DMZ(렛츠 DMZ)' 조직위원장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행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Let's DMZ'는 ▲DMZ 포럼 ▲Live(라이브) DMZ ▲DMZ 페스타 ▲ART(아트) DMZ 등 4개 행사를 아우르는 명칭입니다.

먼저, 'DMZ 포럼'은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로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판티킴훙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Live DMZ'는 다음 달 21 토요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음악 공연입니다.

공연에는 모모랜드, 김중서, 이은미 등 유명 가수의 축하공연과 평화와 DMZ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DMZ 페스타'는 DMZ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전시행사입니다.

황교익 맛칼럼리스트와 심영순 요리연구가가 함께 진행하는 '이북음식 푸드토크쇼'는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남북정상회담 만찬의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ART DMZ'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마련된 예술행사로 이달 말 연천군 장남동일바라기 축제장과 다음 달 초 김포시 아트빌리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유명작가들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지역예술가들의 거리공연과 평화작품을 완성해가는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